

# 民族音樂學이란 무엇인가

Bruno Nettle

韓 萬 榮 譯

民族音樂學의 定義는 쉬운 일이 아니다. 民族音樂學者들 마다 과거 현재 미래의 과업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자면 과거의 民族音樂學者들은 非西歐音樂과 유럽의 民俗音樂을 연구하는 學徒였다. 그들은 音樂學과 文化人類學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다. 音樂學은 모든 종류의 음악을 客觀的으로 연구하는 學問인데 실제로는 西歐都市文化의 音樂 즉 西歐의 文字化된 音樂 연구를 大宗으로 삼아왔다. 保守的 音樂學者들도 他文化圈의 音樂을 고려하긴 하지만, 대개는 이 광범위한 分野에서 손을 떼고 民族音樂學者에게 내어준다. 그들은 民族音樂學者를 다른 종류의 音樂學專門家 내지는 그들과 동떨어진 分野의 代表者 정도로 생각한다. 文化를 연구하는 人類學者들은 모든 세계의 文化는 그들만의 研究領域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非西歐文化만을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民族音樂學者들은 그 명칭의 정의가 어떻든간에 한편으로는 異國의 音樂을 연구하는 특별한 종류의 音樂學者요 다른 한편으로는 非西歐文化중 특히 음악을 연구하는 특별한 종류의 人類學者가 되고 말았다.

民族音樂學者들은 音樂學과 文化人類學에 功獻했고 그들의 研究方法도 그 두 學問에서 나온 것이었다. 音樂史學者들은 民族音樂學의 資料의 중요성을 상당히 뒤늦게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民族音樂學이 音樂學에 끼친 영향은 상당한 것이다. 두말할 필요없이 民族音樂學은 모든 人間의 音樂과 짐승의 음악이라도 (그런게 있다면) 알려는 音樂學者들의 願望에 공헌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動物의 音樂現象이 억지로 말해서 별수없이 人類學분야(정의틀 내린다면 人間研究가 目的이다)에 속하겠지만 사실은 은연중에 民族音樂學의 關心圈 안에 포함되어 마치 異國文化와 非人行爲의 공통적요소라도 있는듯이 생각한다. 물론 이 두가지의 共通적 요소는 西歐文化와는 낫설다는 것이다. 19세기 후반에 가서야 비로써 音樂學者들은 音樂을 全世界的 현상으로 이해하려고 다른 文化圈의 音樂資料의 必要性을 인식하게 되었다. 音樂心理學者들——초기 民族音樂學者들의 몇몇은 이 그룹에 속했었다——도 그들의 結論의 傍證資料로서 他文化圈의 音樂資料를 필요로 했다.

그러나 20세기의 音樂學者들은 차츰 西洋音樂의 專門家가 되었다. 즉 19세기의 音樂學者

들이 오히려 20세기보다 더 세계적 현상으로서의 음악에 관심이 있었지, 20세기의 音樂學者들은 오직 西歐의 音樂傳統의 어느 한면에만 집중적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民族音樂學은 그러한 특정한 研究에는 많은 功獻을 못했지만 하여간 어떤 자극제는 되었다.

西洋音樂과 非西歐音樂——中近東, 히브리, 인도 등의 음악——의 관계, 더 나아가서 西洋의 진보된 都市音樂과 악보가 없는 民謠와의 關係는 歷史적으로 볼때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西洋藝術音樂은 항상 地理的 條件下에서 民俗傳統과 영향을 주고 받아왔으며 他大陸으로부터의 영향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것 보다 훨씬 강했다. 이 영향력의 가치평가와 원래의 음악 스타일, 이론 등을 서술하는데는 民族音樂學의 方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흔히 드는 예이지만 유럽의 多聲音樂의 起源은 中世 유럽의 그것과 유사한 多聲音樂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非西歐音樂과 관련이 있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中世 西歐音樂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음악 스타일과, 피차 음악사상과 資料를 교환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民謠에 대한 知識은 民族音樂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西洋音樂史 研究에 대하여 民族音樂學의 功獻한 예는 허다하다. 즉 中世 多聲音樂은 좋은 例證 하나이다. 非西歐音樂과 民謠에 관한 연구업적은 西洋音樂史의 知的解析에 필수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비슷한 例로 人類學에 끼친 音樂知識을 들 수 있다. 音樂은 몇 안되는 凡世界的 文化현상중의 하나다. 音樂이 없는 國民이 없기 때문이다. 세계의 음악이 그렇게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음악과 음악행위에는 同一性이 있다. 그래서 人類學者는 특정한 文化에 대하여 잘 알려면 그 사람들의 音樂行爲에 대한것 또한 알아야 한다. 특히 음악이 宇宙觀 哲學 및 儀式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文化일수록 더욱 그렇다. 또 사실 그런 民族이 많다.

音樂은 人類學의 특정 이론에 대한 確證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브라질의 笙의 調律方法에 대한 E.M. Von Hornbostel의 研究結果는 좋은 例인데, 그는 이것이 오세아니아의 여러 지역에서 쓰이는 笙과 同一한 調律法으로서 아마도 이 두 지역은 先史時代에 文化接觸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했다. (이러한 Hornbostel의 見解는 논쟁의 여지가 많은 것이지만 하여간 音樂的 資料가 人類學에 기여한 고전적 例이다.)

文化移植(즉 근접한 두 文化가 접촉하여 생긴 結果)은 음악을 통하여 연구될 수 있다(Wachsmann 1961, Merriam 1955). 文化人類學에서의 統計的 測定은 음악현상의 사용으로 이루어 지는데, 이는 音樂이 宗教나 社會組織 등과 같은 다른 文化樣相보다 더 쉽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Merriam 1956). 또 다른 이유는 음악이 文化人類學의 統計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어떤 곡들의 내용이나 다른 곡들과의 共通的特徵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이 사실이 民族音樂學의 理論과 研究方法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어떤 노

래가 한 곳에서 다른 文化圈으로 이동하고 그 과정에서 變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또한 한 스타일의 특징——형식 음계 리듬의 모양——이 옮겨가서 이미 기존곡을 변화시킨다는 것도 가능한 일이다. 이 종류의 차이는 여러 文化現象중 音樂과 다른 藝術에서 아주 쉽게 구별되기 때문에 人類學者는 文化現象의 解析에 音樂資料를 특별하게 이용한다.

이제 우리는 民族音樂學이 歷史的 音樂學과 文化人類學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여러 民族音樂學者들의 定義와 強調點이 아무리 다를지라도 民族音樂學이 이 두 分野와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부인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또 다른 두 分野 즉 民俗學과 言語學(이 두가지는 어떤 의미에서 人類學의 한 部分이다)에서의 民族音樂學도 언급되어야 한다. 확실히 口傳으로서의 음악(이것이 일차적 자료다)은 民俗學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口傳속에 살아있고 특히 藝術的創造와 관련된 文化樣相을 다룬다. 音樂은 어떠한 言語와 관련있는 意思傳達의 한 形式인 까닭에 세계의 음악을 연구하는 民族音樂學分野 세계의 言語를 연구하는 言語學分野와 피차 功獻할 수 있다. 특히 言語와 音樂과의 關係를 研究하는데 이 두 文化要素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

### 民族音樂學의 範圍

民族音樂學者는 주로 세 종류의 음악을 다룬다고 말할 수 있다. 民族音樂學의 特性과 歷史는 아마도 無文字社會의 음악인데 이들은 自國語를 읽고 쓰는 法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따라서 비교적 간단한 生活方式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Sachs(1962)는 이 견해에 반대한다(다른 몇 學者들도 같은 의견이다). 왜냐 하면 文字의 有無가 文化形態의 주요 차이점을 이룰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無文字 民族에는 미국 인디언, 아프리카 黑人, 오세아니아인, 호주 원주민, 아시아의 여러 部族등이 있다. 이들 文化는 흔히 “未開的” 또는 “原始的”(“primitive”이라 불리지만 이 말은 인류역사의 始初 또는 단순하다는 意味를 가졌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단순하다는 말도 옳지 않은것이 無文字文化라도 매우 복잡한 사회구조, 복잡한 儀式, 예술, 음악스타일, 음악과 관련된 習俗을 가진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無文字社會의 사람들이 英語를 배워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간다) “未開人”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未開”라는 말은 人類學이나 民族音樂學 문헌에서 차츰 살아져 갔다. “preliteracy”(文字以前)란 말도 사용되었으나 이런 말은 進化論的 의미가 내포되어 有無識을 따지는 결과가 되어버린다. “tribal”(種族)이란 말도 있지만 이것은 大部分의 無文字文化圈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社會的 政治的 團體(人種)를 뜻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어렵다. 만일 하나의 文化圈이 어떤 種族團體도 가지고 있지 않고 無文字라면, 그 음악은 아마 토론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種族” 文化를 정의한다는 것은 힘들다. 그리하여 “無文字”(“nonliterate”)라는 말은 “種族” 또는 “未開” 같은 짧고도 생기있는 단어에 비해 멎은 말이긴 하지만 民族音樂學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있는 사람들의 集團에게는 가장 적합한 말이 될 것이다.

두번째 종류의 음악은 아시아와 北部아프리카의 고도의 문화권의 음악——中國, 日本, 자바, 발리, 西南아시아, 印度, 이란, 아랍諸國——이 포함된다. 이 文化들은 고도로 발달된 음악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점에서 西歐음악과 同等한데, 그 특징으로 상당히 복잡한 스타일과 專門音樂人의 발달, 音樂理論과 記譜法등을 들 수 있다. 이 文化들은 수세기동안의 音樂文獻이 남아있어 西洋音樂史學者와 同一한 方法論으로 研究 可能하다. 사실 이들중 어느 나라도 記譜法을 西洋처럼 복잡하고 명료하게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들의 音樂生活은 都市에서 까지도 대개 口傳에 의존하는데 개개인 음악을 들어서 배우지, 악보로 배우지 않는다. 이렇게 볼때 無文字 音樂文化와 東洋의 高度한 文化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기란 어렵다. Kunst는 後者를 “傳統的”(“traditional”)이라 불렀는데(Kunst 1959:1), 民族音樂學 文獻은 그리 깊이 따지지 않고 이 廣域의 文化圈을 간단히 “東洋”(“oriental”)으로 부른다.

세번째 종류의 음악은 民俗音樂인데 (이것은 모든 民族音樂學者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高度의 文化圈에서 볼 수 있는 口傳音樂을 말한다. 따라서 西洋뿐 아니라 中國, 日本등 아시아 諸國이 다 民俗音樂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西洋의 民俗音樂이 연구에 큰 몫을 차지한다. 民俗音樂은 흔히 無文字社會의 음악과 구별되는데, 그것은 藝術音樂과 共存하면서 피차 영향을 주고 받는다. 民俗音樂은 또한 발달된 都市의 藝術的 음악과는, 악보가 아니라 口傳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또 대개는 教會 學校 政府같은 공공기관 밖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래서 많은 學者들이 民俗音樂을 民族音樂學의 대상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이유는 비록 西洋音樂과 관계는 있지만 그 음악 스타일이 아직은 낯설어서 民族音樂學의 共通因數인 낯선 異國의 音樂의 설명방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 民族音樂學의 몇가지 方法論

모든 學問分野가 초기에 있어서는 다 그렇지만, 民族音樂學도 그동안 많은 自體의 批判과 分析을 거듭해 왔다. 1950년 이후 民族音樂學의 範圍에 대하여 많은 論文들이 나왔다. 이러한 글들이 論爭같은 인상은 풍기지만 筆者들은 그 分野의 外的限界보다는 內的限界를

주로 다루었고, 그결과 民族音樂學의 範圍決定에는 대체적으로 合意되었다. 즉 西歐文化도 포함한 全世界의 文化가 對象이긴 하나 특히 非西歐音樂과 民俗音樂 研究를 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Jaap Kunst(1959: 1)는 口傳音樂을 주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Curt Sachs는 그의 民族音樂學 著述書(1959)에 副題로 “낯선 文化圈의 音樂”(Musik der Fremdkulturen)이라 붙이고, 이러한 음악은 比較音樂學(民族音樂學의 初期名稱) 研究의 資料가 된다고 한다. 독일의 Marius Schneider도 (1957: 1) 이것을 非西歐音樂의 研究로 규정하고 比較研究의 重要性을 강조했다. Rhodes(1956)도 같은 立場을 지지한다.

그러나 Kolinski는 (1957: 1-2) 民族音樂學의 範圍가 단순히 地理的 條件만으로 규정되어서는 않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民族音樂學이 많은 다른 文化圈의 音樂研究로부터 생긴 觀點을 발전시켰지만, 이 觀點은 또한 西洋藝術音樂에도 적용되지 않으면 않된다고 주장한다. 이리하여 民族音樂學이 地理的으로 非西歐世界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見解는 많은 反對와 批判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많은 學者들이 西歐藝術音樂도 民族音樂學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승복하면서도 異質文化研究를 통해서만 學者는 충분히 客觀的일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自國文化를 研究하는데는 너무 많은 偏見과 人間的 속박이 있기에 客觀性을 띄기가 힘들다고 民族音樂學者들은 믿는다. 이리하여 우리는 西洋音樂이 아시아, 아프리카學者들에 의해서 民族音樂學的 方法으로 研究될 수 있고, 반대로 西洋 사람도 非西歐音樂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다.

이 方向을 좀 더 밀고 나가서 Merriam(1960)은 民族音樂學的 方法論의 보편적 적용의 必要性을 강조한다. 사실 Charles Seeger는 (“民族音樂學은 어디로?” p. 101) 西洋音樂史家들이 「音樂學」(musicology)이란 단어를 民族音樂學에서 빼어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西洋音樂史家들은 우리가 中國音樂史家라 부르는 것처럼 音樂史라는 넓은 領域中 어느 특정분야의 전문가로 불러야 할 것이다. 이런 제의는 매우 정당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여도록 강요할 것까지는 없다. 끝으로 Chase(1958: 7)는 民族音樂學을 西歐人도 포함한 “音樂을 통한 當代人 研究”라고 규정했지만, 이경우 高度의 東洋音樂의 歷史 研究와 無文字文化圈의 考古學의 證명의 効用을 제외시키게 되는 결함이 있다.

모든 民族音樂學者들은 音樂構造와 文化的 背景을 꼭같이 研究해야하며 이 兩者를 알므로서 研究가 정말로 타당하다는 사실에 同意하고 있다. 1930년 이전의 연구에서는 音樂自體의 分析과 서술이 다른 研究(즉 文化的背景에 대한 研究)보다 더 중요했다. 그러나 1950년 이후 人類學쪽에서 온 美國의 民族學者들은 音樂自體에 대한 지나치게 상세한 研究보다는 音樂文化研究에 더 큰 관심이 있는듯 하다. Merriam은 (1960: 109-110) 音樂自體 이

외에도 주목해야 할 6가지 分野를 들었다.

- ① 樂器
- ② 노래의 歌詞
- ③ 그 民族 나름의 音樂分類法
- ④ 音樂人的 役割과 身分
- ⑤ 제반 文化현상에 있어서의 音樂의 機能
- ⑥ 創造活動으로서의 音樂

Merriam은 또한 field work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효과적 연구를 위하여 民族音樂學者들이 필요는 하는 資料를 스스로 採集하며 그것을 “살아있는” 모습대로 관찰하라는 것이다. 아무도 field work의 중요성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1940년경 이전까지 몇몇 학자들은 現場에 가려고도 않고 갈 수도 없이 研究室에서 比較研究만 하는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던 때도 있었다. 레코드는 만드나 分析은 할수없는 사람들(아마도 人類學者들)이 모아준 음악을 집에서 研究하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는 “安樂의자의 民族音樂學者”(Merriam 1960 : 113)들은 차츰 사라지게 되었다.

다음에 논의할 사항은 기초적 field work가 低開發國에서 그나라의 學者에 의한 資料수집과 서술로 代置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콩고에서 field work하는 미국의 學者 대신에 콩고인의 field work로 대체될 수 있다. 그러나 전혀 한 文化圈에만 몰두하여 field work를 하는 民族音樂學者는 比較研究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말할 수 있겠다. 만일 그나라의 사람이 대신 field work을 해준다면 이 民族音樂學者의 역할은 무엇이 될가? field work를 빼놓는다면 광범위하고도 비과학적인 安樂의자적 方法論은 民族音樂學에 매우 기본적인 공헌이 될 것이다. Seeger는 “民族音樂學은 어디로?”(p. 104)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누가 그 결과들을 정리할 것인가? Hornbostel學派야 말로 위대하고도 고상한 目標를 달성하려던 사람들이었다. 이 두 方法(field work와 비교연구)은 우리에게 人類的 音樂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음악을 理解하는 途徑은 그 民族文化를 먼저 理解해야 한다는 Merriam(1960 : 113)의 견해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1953년 이후 일단의 美國民族音樂學者들은 Merriam이 생각했던바에 따라 외국에 가서 실제 樂器를 배움으로 그 文化에 접하려고 노력했다. Mantle Hood를 필두로 이 사람들은 한 文化的 音樂 스타일은 그 言語와 같다고 보고 그곳의 음악가만치 되려고 오래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外國語 습득이 오랜 공부와 연습이 필요한 것처럼, 外國音樂을 아는데에는

(bi-musical) 그 문화와 빈번한 접촉과 시간을 요한다는 것이다(Hood, 1960). 몇 민족音樂學者들은 現地の 大家들에게 배운 결과 태국 인도 일본 음악가와 마찬가지로 名人이 되었다. 이들은 한 두 外國音樂文化的 專門家가 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폭넓은 比較研究는 不可能했다. 많은 音樂文化를 통달한다는 것은 많은 言語에 통달하기보다 더 어렵기 때문이다. bi-musicality(自國의 音樂 이외에 他國의 音樂을 하나 더 아는것)의 개념은 非西歐國家의 民族音樂學者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그들의 目的은 自國의 音樂의 客觀的 研究뿐 아니라 西歐的 要素와 自國것이 합쳐진 音樂文化를 形成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人類學에서 “應用 人類學”이라하듯 “應用 民族音樂學”이라 부를 수 있는데 그 機能은 非西歐 學者들을 西歐文明과 친숙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Hood의 설명은 1963년에 책으로 출판되었다. 이 책에서 Hood는 美國의 民族音樂學史를 쓰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는 民族音樂學이 주제로하는 對象——非文字文化圈의 音樂, 발전된 東洋社會의 音樂, 東西文明社會의 民俗音樂——과 이들 對象의 限界規定 및 研究方法論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결국 民族音樂學이란 世界音樂에 대한 理論과 知識을 追究하는 學問으로서, 研究者 自身の 文化圈 밖의 音樂을 敘述的 比較的 觀點에서 研究하는 것이다.

現場研究(Field work)와 分析, 音樂的 構造, 文化的背景, bi-musicality의 發展과 관련된 광범위한 比較와 깊은 專門性, 橫的 縱的 研究——이 모든것이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또한 研究者 自身の 文化的 背景에 의한 價値評價를 排除하고 音樂을 文化의 一分野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중요하다.

民族音樂學者들은 보통 西洋藝術音樂史學者들과 어떻게 다른가? 私見으로는 民族音樂學者도 西洋音樂을 연구할 수 있다고 본다. 西洋音樂史學者들은 전체 音樂文化中 몇가지 部分만을 다루고 있으며, 중요한 部分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양으로 輕視하는 수가 많다. 西洋音樂을 民族音樂學的 見地에서 본다면 文化로서의 音樂의 役割, 演奏의 問題點들, 詳細한 記譜法 對 慣例的 記譜法의 問題, 音樂敘述의 과정과 方法(이點은 西洋音樂에서 거의 度外視하고 있다)등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民族音樂學者들은 낮은 音樂文化研究의 難點 때문에 資料의 客觀性과 批評을 확증하려는 方法들을 발전시켰다. 西洋音樂史家들은 自國文化를 연구하는 까닭에 客觀性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고, 따라서 그들의 著書들은 學者的이라기 보다는 批評家의 方法을 느끼게 해준다. 民族音樂學者는 他音樂文化研究때문에 개발된 여러 技法을 西洋音樂研究에도 이바지 하여야 한다.

## 民族音樂學史의 傾向들

民族音樂學같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확고한 歷史를 쓴다는 것은 힘든 일인데, 이 分野의 代表的 開拓者들이 아직 살아서 活動하고 있기 때문이다. 民族音樂學史의 간단한 沿革은 Sachs(1962 : 5-22), Kunst(1959), Nettl(1956 : 26-44) 등이 언급한바 있다. 民族音樂學史의 理想的 傾向을 말하기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學者들이 살아있어 그들의 業績을 評價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많은 傾向들이 여러나라에서 나왔고, 民族音樂學의 範圍가 너무 넓기 때문에 한 學者의 研究結果가 종래의 傾向에 急變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몇가지 뚜렷한 傾向이 定立되었고 여러 方法論이 나옴에 따라 과거의 強調點과 關心이 나중에는 아무 가치없는 것으로 되어버리기도 하였다.

非西歐音樂에 대한 關心은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民族音樂學이란 명칭과 方法論, 裝備등은 비교적 새로운 학문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매우 異國的인 民俗音樂과 아시아音樂에서 소재를 구한 中世後期 및 르네상스 作曲家에서 시작되었다고 볼수도 있겠는데, 그들 작품의 한 素材로 쓰였을 뿐이다. 르네상스의 人本主義者들과 18세기 合理主義者들은 人間行爲의 諸樣相과 他國人的 生活樣式에 대한 現代人的 關心의 정신적 선구자였다. 장 자크 루소는 民族音樂學史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1767년 출판된 그의 音樂辭典에 民謠(西歐의) 中國音樂 美國土人的 音樂의 樂譜를 수록하였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 宣教師들은 東洋音樂을 叙述하였다. 西洋의 民謠는 19세기초 英國과 獨逸에서 현저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불란서 선교사들(du Halde, Amiot)의 中國音樂叙述과 哲學者이며 言語學者였던 Grimm 兄弟와 Herder가 文化遺産으로 수집한 독일민요 등은 참고할만 하다. 이 兩者의 배경은 서로 다르지만 낯선 音樂의 價値를 높이 評價한 점은 같다. 재미있는 점은 宣教師는 원래 西洋의 宗教와 文化를 東洋에 소개하는게 目的이었는데 반대로 東洋音樂을 西洋에 소개한 점이다. 그당시 낭랑과 詩人들은 土俗民謠에 관심이 있었다. Herder의 民謠集(Pulikowski 1933)이나 第一代 英國民俗學者들(Dorson 1955)의 民俗學論文등은 民族音樂學 發展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실제로 民族音樂學 理論 定立者들은 19세기 民謠採集家들이나, Amiot같은 宣教師들, Kiesewetter같은 東洋에 관심있던 西洋音樂史家들과 별 관계가 없었다.

흔히 民族音樂學은 역사적으로 볼때 音樂學보다 연륜이 짧은듯이 보이지만 現代의 意味에서 두 學問의 시초는 같은 연대에 시작하였다. 「音樂學」은 1885년 Philipp Spitta, Friedrich



Chrysander, Guido Adler가 創始한 「季刊 音樂學」(Vierteljahrschrift für Musikwissenschaft)의 刊行으로부터 비롯한다고 알려져 왔다. 이들은 音樂史와, 보다 학문적 과학적 音樂學 研究를 분리시켜서, 西洋音樂史뿐 아니라 여러가지 「組織音樂學」(systematic musicology)——音樂理論, 音響學, 音樂心理學, 非西歐音樂의 比較研究등을 포함했다. 「季刊 音樂學」 제 2집은 民族音樂學上 획기적 里程碑를 세웠다. 즉 Carl Stumpf의 Bella Coola Indian Songs (Stumpf 1886)에 관한 研究인데, 실로 이것이 최초의 民族音樂學的 論文이라 생각되는 것은 한 種族의 音樂스타일을 音階와 旋律의 構造에 중점을 둔 연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Jaap Kunst(1959 : 2-3)는 Stumpf보다 A.J. Ellis를 民族音樂學的 鼻祖로 생각한다. Ellis의 主要著書(1885)는 Stumpf의 論文(1886)과 시간적으로 비슷해서 歷史的 音樂學과 民族音樂學이 같은해에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Ellis의 方法論에 대한 功獻——소위 cents 音程測定法——은 한 文化圈의 音樂研究보다 더 중요하다고 Kunst는 생각한다. 이 두 사람중 누가 民族音樂學的 創始者가 되던, 하여간에 1880年代에 歷史的 音樂學과 함께 시작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民族音樂學은 단일 분야의 體系라느니 보다는 非西歐音樂文化에 대한 그 당시의 분분했던 여러 理論들의 集合이었다. Carl Stumpf는 心理學分野의 권위자로서 Erich von Hornbostel과 함께 벨린大學 心理學研究室에서 함께 일했다. A.J. Ellis는 言語學者요 數學者였고 Walter Fewkes는 人類學者였다. Franz Boas는 美國의 民族音樂學者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人類學者로서, 그의 처음 研究對象이었던 地理學과 物理學의 方法論을 人類學에 導入하였다. Adler, Spitta, Chrysander는 西洋音樂史學者로서 최초의 民族音樂學的 論文을 그들의 學術誌에 실음으로서 有名했고 民族音樂學에 대한 關心과 존경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에 끼친 영향이나 功獻은 거의 없다. 1940~1950년대에는 音樂史學者들 보다는 民俗學者나 人類學者로서 民族音樂學者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西洋音樂學者가 民族音樂學 分野로 올때에는 歷史學者보다 演奏나 作曲을 하게 되는 것이 통례였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理論을 내놓은 결과 民族音樂學은 이렇다 할 方法論이 없는 分野가 되고 말았다. 어떤 單一傳統이 우리의 方法論을 만들수는 없게 되었다. 民族音樂學은 그 文化的 脈絡에서 全世界音樂을 이해한다는 넓은 目的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많은 分野의 研究經驗을 필요로 한다. 이 分野의 다양성은 분명한 의사소통을 방해하긴 하지만 이것이 부당히 아니라 우리의 遺産이다. 그러나 초기에는 心理學과 數學쪽에서 온 學者들이 훨씬 중요하고도 깊은 영향을 끼쳤다. Ellis는 音程을 客觀的으로 測定하기 위하여 cent 測定方法을 만들어 半音을 100cent로 잡고 音階를 客觀的으로 記述하였다.

留聲機의 발명이 民族音樂學發達에 준 영향은 아무리 과대평가해도 과장이 않된다. 최초

의 留聲錄音 이후로 非西歐音樂 學徒는 이 놀라운 기계를 사용하여 一次的 資料의 收錄과 分析에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非西歐音樂의 최초의 녹음자는 Walter Fewkes 인데 그는 1889년에 Zuni와 Passamaquoddy Indian Songs를 에디슨의 쉘린다式 留聲機關(譯者註: 옛날 留聲機는 圓筒形의 蠟管을 사용했다)에 담았다. 얼마후에 나온 蓄音機로 民族音樂을 수록한 사람은 美國의 Frances Densmore였고, 독일의 선구자 Carl Stumpf 또한 錄音資料에 基하여 印度音樂研究(Stumpf 1892)를 출판하였다. 非西歐音樂研究에서 錄音使用에 必要性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西洋音樂에 젖은 學徒의 귀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소란스러운 소리로부터 어떤 체계를 얻을 수 있도록 익숙해 질때까지 계속 들을 必要가 있었다. 그러나 유럽 民謠分野에서 錄音에 의한 研究의 必要性은 늦게야 인식되었는데, 이는 그런 음악에 항상 접하고 있으며 그 음악 스타일은 西洋音樂을 통해 친근하고 이미 採譜되어 있고 수십년전부터 民謠集으로 출판되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저 유명한 Béla Bartók(녹음에 基한 그의 樂譜는 通俗的 民謠集의 그것과 크게 차이가 있었다)는 民族音樂學의 方法에 의한 採譜가 기왕의 民謠集의 악보와 전혀 달랐으며 그는 헝가리와 다른 東歐의 民族의 科學的 研究結果를 출판해 내기 시작했다. 이로부터 유럽의 民謠가 현장녹음되고 採譜되기 시작했다.

19세기末에 녹음기술이 본 궤도에 오르자 음악에 별로 관심없던 사람들 까지도 우연히 가본곳의 音樂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全世界의 植民地化 내지는 西歐化 과정에서 世界音樂文化는 變化되기 시작했고 많은 音樂 스타일이 곧 사라져 갈 위험에 처했다. 이 현상은 유럽이나 北美에도 적용되는데, 급속한 都市化 産業化로 전통 민요 스타일을 소멸시켜버릴 위험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人類學者나 民俗學者들은 음악 녹음에 열을 올렸으나, 音樂에 대한 지식은 없이 레코드만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量의 실린더와 후에는 蓄音機關들이 나왔고 民族音樂學者들에게 넘겨져서 이들은 研究室에서 採譜와 分析만을 했다. 그러나 收集資料는 많고 學者들은 적어서 archive(資料室)設立이 필요하게 되었다.

아카이브란 음악자료의 保管 再生 分類 目錄作成등을 하는 것인데 民族音樂學 分野에 필요불가결한 것이며, 이에 대한 특별한 지식과 기술이 발달하게 되었다. 아카이브는 어떤 의미에서 다른 學問分野의 圖書館과 같은 것이다.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아카이브는 벨린 Phonogramm 아카이브인데 1900년에 Carl Stumpf와 Otto Abraham이 설립한 것으로 독일 人種學者들이 가져온 실린더를 保管하는게 주목적이었다. 벨린 아카이브는 수십년동안 세계도처, 특히 美國에서 세운 아카이브의 모형이 되었고, 벨린 아카이브의 助手였던 George Herzog는 후에 컬럼비아大學에 이와 유사한 아카이

브를 만들고, 1948년에는 인디아나大學으로 옮겨앉았다. 二次大戰後 대표적 아카이브는 Herzog가 설립한 Archives of Folk and Primitive Music(1954년에 George List가 맡게 된다)와 美國會圖書館 民謠 아카이브 등이다. 여러 歐美 아카이브史를 알려면 Folklore and Folk Music Archivist나 Kunst(1959), Herzog(1936), Hornbostel(1933)의 책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대부분의 아카이브는 모든 종류의 背景的 知識을 錄音과 함께 가지고 있으나 그 악보는 많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디아나大學 아카이브와 벨린 아카이브는 錄音物에 대한 刊行物을 발간하고 있다. 또 몇몇 유럽의 아카이브들은 民謠採譜와 音盤製作을 하기 시작하였다. 가장 뛰어난 아카이브는 아마 Freiburg-im-Breisgau에 있는 독일민요 아카이브(Deutsches Volksliedarchiv)일 것이다. 여기에는 독일민요의 가사와 음악이 사본과 音盤으로 보관되어 있다. 이 Freiburg 아카이브에는 많은 目錄과 索引이 있어서 민요의 形態別 地方別, 詞句別, 他國의 유사한 民謠, 인쇄된 資料의 포함여부 등으로 分類할 수 있게 해 놓았다. 이러한 分類法은 非西歐音樂을 중심으로 하는 아카이브에는 많은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점차로 모든 아카이브가 본받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우리는 아카이브의 발달이 지극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하겠다.

1960년대에 많은 나라의 國立아카이브와 美國같이 큰 나라에서의 州立아카이브, 또는 法人體의 아카이브 등이 많이 생겼다. 따라서 民族音樂學의 課業중 하나는 이 모든 收集品에 관한 知識을 集約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많은 民族音樂學者들의 研究는 文化속의 音樂이 기 보다는 樂曲하나 하나에 관한 것이었다. 사실 아카이브는 어느 정도 文化的 脈絡으로서의 音樂을 무시해온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民族音樂學者들의 研究傾向이 그러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 美國에서의 民族音樂學

1900년 이후 美國에서의 民族音樂學은 유럽보다 훨씬 우세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찌기 Walter Fewkes는 녹음활동을 했었는데 후에 와싱턴에 있는 美國人種學研究所(印度音樂研究와 Frances Densmore의 거창한 녹음활동을 후원한 機關)의 책임자가 되었다. 非西歐音樂을 연구하는 美國의 學徒들은 음악이 人間行爲의 한 面으로서 文化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곧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거의 예외없이 現場 錄音——물론 그 나름대로 가치있는 공헌이긴 하지만——이상으로 음악에 큰 관심이 없었다.

美國의 몇 人類學者들은 적극적으로 錄音과 採譜分析 등등을 해나갔다. 人類學 研究所들도 非西歐音樂을 연구하는 學者들을 후원하였다. 이는 Franz Boas의 공로라 할 수 있는데, 그는 독일태생으로서 現場研究, 文化全般에 관한 敘述, 心理學에 대한 關心 등을 강조한 美國式 方法論의 主唱者였다. Boas 자신도 美國과 캐나다의 西北沿岸地方의 민요를 현장녹음하여 상당량을 採譜하였다. 그는 또 많은 弟子들을 훈련시켰는데 다들 훌륭한 學者들이 되었으며(그중 George Herzog), 그들의 연구에서 藝術의 役割을 강조했다. 人類學의 背景을 가진 美國의 民族音樂學의 傳統은(유럽은 반대로 音樂學의 背景을 가지고 있었다) 195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물론 이 말은 많은 예외가 있어서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되고 차라리 傾向을 의미한다고 보며, 또 學者들을 兩쪽으로 딱 區別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 兩者關係에 있어서 民族音樂學者는 Sachs에 따르면(1962: 15) “音樂學과 人種學間의 담위에 걸터앉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두 學問中 어느 하나로 부터 시작한 學者가 다른 學問쪽이 매력있고 必要한 것임을 알게되는데 起因한 말이다.

人類學에서 온 美國의 民族音樂學者들은 音樂과 人類學分野를 자주 넘나들었다. 어떤 이들은 演奏者가 되어(특히 제즈) 민요와 非西歐의 뿌리를 자신의 음악에 混用하려고 했다. 또 어떤 이들은 西洋音樂史學者로서 他文化圈의 音樂을 「比較音樂學」으로서 西洋音樂研究와 同一한 方法論에 의하여 理解하려 하였다. 人類學徒였던 어떤 이들은 아프리카 음악을 듣고는 어릴때 받은 피아노 레슨을 생각하여 이 異國音樂을 더 탐구해 보려는 욕망을 가지게 되었다. 學生때 人類學에 관심을 가졌다가 후에는 人類學者로서 民族音樂學分野로 되돌아 온 音樂家들은 매우 특징있는 사람들이다. 文化史 전공학생이 大學院에 입학하여 음악에 관심을 갖고 民族音樂學 연구에 필요한 음악지식을 얻기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採譜와 分析의 기술은 아마도 어려서부터 훈련받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것은 책을 많이 읽었다고 되는게 아니라 연구실에서 많은 시간의 훈련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하여간 최근까지 음악적 배경이 없는 美國의 人類學者는 현장에서의 녹음채집 이상의 음악연구에는 늘 속수무책이었다. 하여간 文化속의 音樂의 중요성을 알고, 그래서 民族音樂學者들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美國의 人類學者들은 音樂的 行爲 그 자체를 서술하는데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傾向일 뿐이다.

1940년대 이후로 Melville J. Herskovits, Alan P. Merriam, Richard A. Waterman, 등이 音樂的 背景이 없는 人類學者들에게 전문적 音樂分析을 하지 않고도 音樂行爲의 어떤 면을 직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方法을 제시하였다(Merriam, 1960).

비슷한 傾向이 1950년대 유럽에서도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유럽의 學者들은

철저히 훈련받은 音樂學者로서 나중에 民族音樂學으로 들어와 필요한 人類學的 지식을 요약함으로써 완숙한 학자가 되었다. 그들은 音樂史學者이기 때문에 無文字文化에 관심을 보이긴 하나 특히 아시아의 高度의 藝術音樂을 연구하는 수가 많다. 1950년대까지 美國 民族音樂學者들은 주로 이른바 “民謠와 未開人の 音樂” 研究生들이었다.

1950년대 초기에 美國民族音樂學界에 세가지 중요한 경향이 나타나 그 면모를 일신시켰다.

첫째는 두 文化圈의 音樂에 대한 知識(bi-musicality)으로서, 他文化의 音樂의 學問的 소개와 실제 演奏, 그리고 그 음악 스타일과 行爲의 기본요소를 배우는 방법으로서 그 음악의 이디엄을 사용하여 作曲까지 하는것을 말한다. 이 방법은 UCLA의 Mantle Hood가 처음 시작하여 音樂家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民族音樂學을 大學의 人類學科에서 뺏아서 民族音樂學에 대하여 무관심했었던 音樂科에 두게 하였다. 이 새로운 학교의 학생들은 人種學的 調查者로서가 아니라 學生으로서 현장에 나가, 자기를 가르칠 유능한 현지인 선생을 찾아 그곳의 音樂藝術을 배우고, 또 현지인 학생에게는 西洋音樂을 가르친다.

물론 이 方法은 음악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길과 음악이론의 체계, 음악교육의 전통이 있는 그런 文化圈에서라면 아주 간단하다. 따라서 아시아의 高文化圈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Mantle Hood의 弟子들은 많은 美國大學에서 民族音樂學을 가르치게 됨에 따라 東洋音樂은 民族音樂에서 보다 큰 몫을 차지하게 되었다. 보다 전통적 人類學的方法은 이 새로운 方法과 나란히 계속되었으나 David P. McAllester같은 人類學者까지도 실제연주가 受動的 觀察과함께 他國의 音樂文化를 연구하는데 절대 필요하다는 생각에 깊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附言할 것은 演奏나 bi-musicality의 方法이 분명히 큰 도움이 되지만 인도나 일본의 음악가처럼 된 학생이 곧 民族音樂學者가 된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그는 아직 세계음악의 지식에 아무런 공헌도 하지 않았다. 다만 장차 공헌할 준비를 하고 있을 뿐이다.

1950년대의 두번째 傾向은 他文化圈의 現在의 音樂에 대한 關心이다. 西洋音樂에 영향을 받지않은 “순수”하거나 “출처가 확실한” 資料를 찾던 傾向은 차츰 사라지고, 한 文化圈에서 얻을 수 있는 음악자료는 그대로 연구대상이 되며, 그 曲의 추정년대나 他文化 영향의 정도는 재미있긴 하지만 民族音樂學研究에 포함되는 評價基準은 될 수 없다. 어떻게 해서 西洋音樂이 非西歐音樂에 영향을 주게 되었는가하는 과정과, 궁극적으로 西洋의 고도문화에 대한 民族音樂學의 研究에 대한 관심이 분명하게 점점 커가고 있다. 따라서 民族音樂學은 美國 人類學界의 傾向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 見解를 따르면 人類學의 方法論이 他國文化만 아니라 自國文化를 연구하는데도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二次大戰 이후 美國 人類學者들은 美國文化研究에 열을 올렸으며 (美國 人類學誌 Vol.

57, No. 6, 1955 참조), 만나라 學者들은 자기나라 文化를 연구했다. 無文字國에서도 音樂 學者들이 나옴으로서, 民族音樂學者들은 自國의 文化를 研究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가능함을 증명하였다. 人類學者들이 社會學者나 歷史學者 心理學者 등등과 의견충돌이 생기듯, 民族 音樂者들은 西洋音樂史學者나 音樂心理學者들과 상충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美國의 民族 音樂學者들의 주장은 他文化圈의 音樂研究方法을 有効적절하게 西歐藝術音樂에 적용하던 音樂學의 方法으로는 할 수 없었던 어떤 結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이 옳고 그름은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音樂을 世界的 眼目으로 比較 研究하는데는 유용하다. 초기의 民族音樂學者들은 낯선 文化圈의 音樂을 연구하여 人間의 音樂行爲를 규명하려 했는데 이는 자기의 文化만으로는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民族音樂 學者도 人間의 音樂文化 研究 목적으로 非西歐文化 및 民俗文化와 함께 가장 복잡한 西歐 文化도 그의 學問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번째 傾向은 音樂 스타일의 分析이나 叙述없이 현장연구를 통하여 音樂의 역할과 개개의 음악활동을 연구하는 것이다. 人類學이 이 方法論에 끼친 영향은 위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거나와 한가지 지적해야 할 일은 레코드 產業이 갑자기 成長하여 상당히 많은 非西歐音樂과 民俗音樂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들 대부분이 좋은 研究材料가 되었다. 한曲 採譜에 수 시간씩 소비했던 民族音樂學者들에게는 일종의 허탈감을 주었지만 악보 없이도 音樂行爲의 상당부분을 分析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일어나게 되었다. 많은 레코드의 출현으로 과거 한 곡 한 곡에 대한 細部的 연구태도는 시들어가고, 音樂 스타일 보다는 이미 人類學에서 해오던 音樂行爲의 叙述에 주력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文化的 脈絡으로서의 音樂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音樂자체의 기술적 연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상 언급한 세가지는 1950~1960년대 美國의 중요한 경향이였다. 유럽의 民族音樂者들은 대체로 1920년대에 개발된 전통적 연구태도를 固守했고 그 功獻도 컸다. 音樂의 類型學, 民俗音樂과 藝術音樂과의 關係, 音樂圈分類 등은 二次大戰 이후 유럽 民族音樂學의 주된 관심사였다. 그러나 1955년 이후 理論과 方法論에 관한 한 美國과 유럽 學者들의 빈번한 접촉과 상호의존이 계속 증대하고 있다.

Bruno Nettl: "What is Ethnomusicology?" Theory and Method in Ethnomusicology 1964

### 參 考 書 籍

- Chase, Gilbert (1958). "A dialectical approach to music history," *Ethnomusicology* 2:1-8.  
Dorson, Richard M. (1955). "The first group of British folklorists,"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68:1-8, 333-340.

- Ellis, Alexander J. (1885). "On the musical scales of various nations," *Journal of the Society of Arts* 1885.
- °Herzog, George (1936). "Research in Primitive and Folk Music in the United States, a survey. Washington: 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 Bulletin 24.
- °Hood, Mantle (1957). "Training and research methods in ethnomusicology," *Ethnomusicology Newsletter* 11:2-8.
- °Hood, Mantle (1960). "The challenge of bi-musicality," *Ethnomusicology* 4:55-59.
- Hornbostel, Erich M. von (1933). "Das berliner Phonogrammarchiv," *Zeitschrift für vergleichende Musikwissenschaft* 1:40-47.
- °Kolinski, Mieczyslaw (1957). "Ethnomusicology, its problems and methods," *Ethnomusicology Newsletter* 10:1-7.
- °Kunst, Jaap (1959). *Ethnomusicology*, 3rd edition. The Hague: M. Nijhoff. Suggested reading, pp. 1-66.
- Merriam, Alan P. (1955). "The use of music in the study of a problem in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57:28-34.
- °Merriam, Alan P. (1960). "Ethnomusicology, discussion and definition of the field," *Ethnomusicology* 4:107-114.
- Merriam, Alan P., and Linton C. Freeman (1956). "Statistical classification in anthropology...", *American Anthropologist* 58:464-72.
- °Nettl, Bruno (1956). *Music in Primitive Cultur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Suggested reading, Chapter 1.
- °Nettl, Bruno (1961). *Reference Materials in Ethnomusicology*. Detroit: Information Service.
- Pulikowski, Julian von (1933). *Geschichte des Begriffes Volkslied im musikalischen Schrifttum*. Heidelberg: C. Winter.
- °Rhodes, Willard (1956). "Toward a definition of ethnomusicology," *American Anthropologist* 58: 457-63.
- Sachs, Curt (1959). *Vergleichende Musikwissenschaft, Musik der Fremdkulturen*, 2nd edition. Heidelberg: Quelle und Meyer.
- Schneider, Marius (1957). "Primitive music," in Egon Wellesz, ed.,
- °Schneider, Marius (1962). *The Wellsprings of Music*. The Hauge: M. Nijhoff. Suggested reading, pp. 1-16.
- Ancient and Oriental Music*.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Oxford History of Music, Vol. I), pp. 1-82.
- Seeger, Charles (1961). "Semantic, logical, and political considerations bearing upon research in ethnomusicology," *Ethnomusicology* 5:77-81.
- Stumpf, Carl (1886). "Lieder der Bellakula Indianer," *Vierteljahrschrift für Musikwissenschaft* 2: 405-426.
- Stumpf, Carl (1892). "Phonographierte Indianermelodien," *Vierteljahrschrift für Musikwissenschaft* 8:127-144.
- Wachsmann, Klaus P. (1961). "Criteria for acculturation," in International Musicological Society, *Report of the 8th Congress, New York 1961*. Kassel: Baerenreiter, p. 139-149.
- °"Whither ethnomusicology?" (1959). Panel discussion. *Ethnomusicology* 3:99-105.